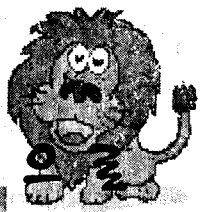


경희의 이름



신준식 동문

자생한의원 원장 <한의학과 88년 졸업>

아픈허리 고치는

맨손의 마술사

경희대 하면 제일 먼저 한의 학과가 떠오른다. 하지만 수많은 한의사들 중 8대째 한 의사를 가업으로 잇고 있는 집안은 그리 많지 않다. TV 를 통한 의학상담으로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다. 그를 찾아 전국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든다. 현재 한의학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, 한의학발 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신 동문을 찾아가 보았다.

<편집자>

"자~날이면 날마다 오게 아니 야 거기 똑바로 서지 못하고 비둘게 서있는 사람들 모두 나한테 와봐. 사 ~람이라면 똑바로 서야 품이 나지. 거기 아저씨 여기 한 번 들려봐. 단 번에 바로 잡아 줄게."

60년대 시골장터에 큰 북을 등에 매고 나타난 약장사들의 전형적인 상술맨트! 하지만 그 당시 가우뚱 하 면서도 그 약을 사던 순진한 농민들의 믿음은 약장사의 '뽕'에 우루루 무너지기 일수였다. 그러나 21세기 를 앞둔 지금 또다시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났다면 철썩같이 믿으라!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비둘어진 척추 를 손이나 팔다리만 사용해 정말 '뽕'처럼 빠르게 맞춰주는 대한추나 학회 회장인 신준식씨가 있기 때문 이다.

그럼 신준식씨는 과연 누구인가? 역삼동에 위치한 자생한의원 원장이자 자랑스런 경희의 동문이다. 추나요법이라는 것은 비둘어진 뼈 를 손이나 팔다리 등을 사용해 바르게 맞추어 주는 것이다. 일반 외과에 서는 수술을 통해 디스크를 치료하 지만 이 추나요법을 통한다면 수술 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. 그런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갖고 있는 그가 바로 대한추나학회의 회 장인 신 동문이다. "수많은 한의학

분야에서 단지 척추 하나만을 연구 해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뿐인데"라며 겸연쩍어 하는 신 동문은 7년 전 추나학회를 만들어 한의사들에게 추나요법을 보급하는데 헌신하여 회원수가 8백 여명에 이르는 지금의 학회를 이루어 냈다.

현재 'SBS 우리집 가정의'에서 5 년째 의학 상담을 하고 있으며, '무엇이든 물어 보세요'와 '건강 365 일' 등에 출연해 이 분야에서는 최다 방송 출연을 자랑하고 있다. 이러한 활발한 활동으로 추나요법을 일반인 에게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.

신 동문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신 동문의 특별한 재능이 갑자기 생 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 밑바탕은 바로 8대째 가업으로 내려오는 한의사 집안. 신 동문의 하 나뿐인 동생인 신민식씨 역시 우리 학교 한의학과를 거쳐 현재 다른 한 의원을 경영하고 있다. 핏줄을 통해 무언가가 전해 내려왔음이 짐작된 다.

그러나 그의 학창시절은 지금과 판판이었다. 대학 시절 미팅도 한 번 못 해봤다는 그는 사진 동아리에서, 단 하루 생활을 해 본 것이 대학 시절 동아리 경험의 전 부라고 한다. 운동 도 좋아하지 않고, 야구의 룰에도 관 심이 없다. 얼마전 벌어진 한일 축구 전 때도 TV를 켜 놓은 채 잠이 들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외골수 적인 단 면을 볼 수가 있다.

그에게는 오직 가업을 이어 '한의 사 신준식'이 되기 위한 노력만이 있 을 뿐이었다.

어려서부터 한의사가 내 직업이라니 생각했다는 신 동문이 가장 불만 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우 리나라 한의학 수술의 부진함. 동우 럽의 경우 풍부한 관광자원을 내세 워 매년 4천만이 넘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. 그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경관을 최 대한 살려 성공한 케이스다.

하지만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. 우 리는 선조로부터 화려하고 웅장한 자연경관도, 훌륭한 문화유산도, 물



▲1년동안 신동문을 찾던 할머니(좌측)가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소개로 신동문을 만나 진료를 받고 있다

려받지 못했다. 신동문은 우리가 물 려받은 것이라고는 정신 뿐인데 우 리는 그것마저도 간과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한다 "서양 의학계는 동양 의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안달이죠. 몇 해 전 하버드 의대에서 우리 학교 와 자매결연을 맺자고 제의를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."라며 하루속히 한의학을 수출해서 중국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한다.

그는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 의사다. 텔레비전 활동이 활발하고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

이 한마디 뿐이었다. 하지만 이 여인 은 별 반응이 없었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다. 병원 내에는 진료를 기다 리는 환자들로 난리가 났다. 15분간 의 실랑이 끝. 그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었다. 이 여성은 결혼 후 줄 곧 딸만 셋을 낳아 시집의 눈치 를 보다못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버린 것이었다. 그래서 정상적인 생 활을 하지도 못하고 남편만 의지하 고 사는데 의부증까지 있어 자살을 기도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. 그녀가 신 동문을 찾았다는 것은 단 지 그만이 자기를 치 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'믿음'이 있었다고 한다. 그후 5개월의 치료 끝에 다른 병원 에서는 포기했던 그녀를 우울증에서 탈 출시킬 수가 있었다 고.

"다른 의사들과 별 로 다른 치료를 한 것은 없어요. 같 은 약을 쓰고도 그녀를 낫게 할 수 있던 것은 제가 그녀에게 병을 이길 수 있다는 '믿음'을 주었기 때문이 죠."

그는 사람이 지녀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두가지로 진실과 사랑을 꼽 는다.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만이 이 두가지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 고 믿는다. 그런 그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은 "미래 를 위해 준비하라"는 것이었다. "대학 생활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명심하고 내일을 위해 한 걸 같은 마음으로 인성과 지식을 키 우라" 라고 말해 주고 싶다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한걸음 꾸준히 걸어온 사람의 자부심이 배어났다.

<최현일 기자>

추나요법이란 무엇인가?

추나요법은 시술자의 손과 팔다 리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거나 보조 기기 등을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 부 위(체표의 경혈, 근육의 압통점, 척 추 및 전신의 관절)를 조작하여 인 체의 생리적, 병리적 상황을 조절함 으로써 치료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. 다시 말하면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 해 가하는 힘이 관절·골격 또는 환 자의 특정 부위를 교정함으로써 치 료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.

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의 경우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 수술을 권유받게 된다. 하지만 외과 수술을 하여 디스크를 잘라내고 비둘어진 척추를 바로잡 아 주지 않으면 언제 재발할 지 모 르는 일이다.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 서는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를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수핵이 터지 지 않은 디스크 질환의 경우에는 수 술 대신 추나요법을 이용해 치료한 다.

신준식 원장 주요 경력

-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
- South Vailor University 동 양의학 박사 과정
- 대한추나학회 회장
- 한의학과 연구원 수석 연구원
-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외래 교수
- 한국 성인병 예방 협회 이사



▲재학시절 본관앞에서 친구들과 함께. 뒷 줄 가운데가 신동문이고, 아랫줄 가운데가 우리학교 한의 학과를 졸업한 동생 신민식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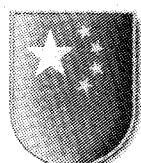
믿을 4 있는 친구 - 삼성

삼성전기의 '29개 해외캠퍼스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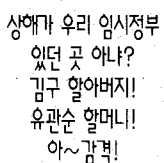
배낭여행을 다닐 땐 한번 둘러보세요.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최전방이니까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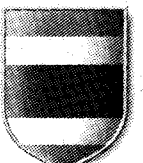
포르투갈 생산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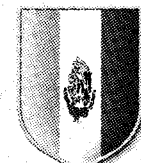
천진, 둥관 생산법인
심천, 복경, 상해 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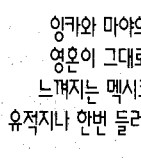
타국 생산법인
빈국 사무소



멕시코 생산법인



핀란드 생산법인
마닐라 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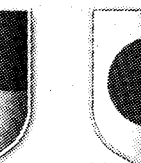
싱가포르 판매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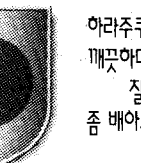
동경, 오사카 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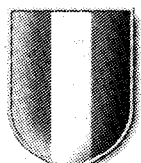
런던 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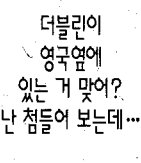
파리 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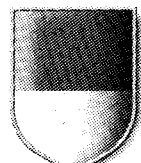
바르셀로나 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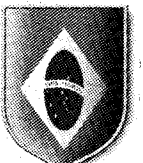
더블린 사무소



자카르타 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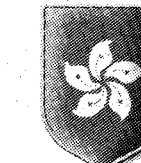
상파울로 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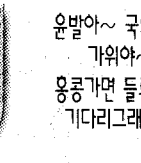
쿠알라룸푸르 사무소



홍콩 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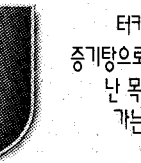
운발아~ 국영아~
가워야~
몽골이면 돌라야~
기다리 그레이~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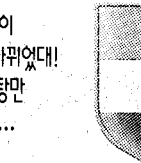
이슬람 사무소



타타르가
중기타르가 바뀌었다!
난 목욕탕만
가는데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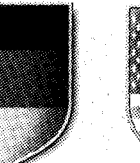
뉴델리 사무소



독일 판매법인



산호세 판매법인
사카고 사무소
뉴저지 사무소



타이베이 사무소

꺼지지 않는 캠퍼스의 불빛이 그 나라의 미래를 밝히듯-
삼성전기는 국내 3개, 해외 6개 생산법인, 해외 23개 사무소를 통해
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부품회사입니다.

전자, 자동차 종합 부품메이커 - 삼성전기

2000년 WORLD TOP 종합부품메이커

SAMSUNG

삼성전기

http://www.sem.samsung.co.kr
천리안, 유니텔 GO SEM